

## 산상설교의 세 가지 걸림돌

정 훈 택 교수\*

### I. 들어가는 말

산상설교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해 온 성경부분이다.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의 진로를 지시하는 그 내용 때문이었다. 구약 예언을 완성하시고 신약시대를 시작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산상설교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에 속한 한 개인이나 기독교란 이름을 지니는 집단이 이 산상설교를 삶의 지표로 삼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열두 사도들의 교훈집 소위 디다케를 가지고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디다케는 생명의 길과 사망과 길을 언급하며 누구나 생명의 길을 따를 것, 그렇게 생명을 얻을 것을 권하는데, 산상설교의 많은 말씀들을 바로 이런 생명의 길로 소개한다.

디다케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이 산상설교와는 전혀 다르다고 평할 수는 없다. 또 초대교회가 유대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졌거나 지나치게 행위의 요소를 강조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된다. 산상설교를 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최전방에 내세웠던 소위 “산상설교적 기독교”를 어딘가 잘못된 교회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들이 비난받은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었다. 산상설교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진실하게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 이외의 모든 기독교 집단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정죄하고 극단적인 배타심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참된 교회로 부각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노력했기 때문이다.

산상설교를 삶과 관계하여 그리고 행위의 규범으로 입도록 요청하는 것은 산상설교 자체이다. 산상설교에 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렬한 적응력과 호소력이 어느 시대의 기독교인이든지 이 산상설교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시대의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의 삶을

\*충신대학 신학 대학원 신약학 교수

적나라하게 다루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부적과 같은 마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설교를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상설교를 개인과 교회생활의 핵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의 원줄기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적어도 산상설교를 읽으며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 주님의 외침을 가슴깊이 새기고 전심으로 그렇게 삶을 구현하려던 그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가 믿는 주님을 외면하고 손쉽게 십자가만을 손에 쥐고 감사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 분이 이 말씀을 하셨고 계속 이것을 우리 인간이 읽고 지키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위한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규범과 가치관 혹은 가치체계를 정립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산상설교의 현실적 가치와 실제적 역할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논할 수 있을까? 삶의 가치와 현장을 그리고 그 원리를 송두리채 내동댕이친 채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자 비기독교적 체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점점 더 깊숙히 혼란의 수렁에 빠져들 뿐 별 도리가 없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기준이 사라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체험하고,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대로 제각기 행동하며 살아가는 20세기 말에 우리 기독교인은 여전히 2000년 전의 '산상설교'로 만족할 수 있는가? 흔들거리는 사회, 이 지구의 한 편 구석에서 우리만은 요동없이, 확고한 우리 나름대로의 규범과 가치체계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살아가고 있는가? 산상설교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규범이 되고 가치관을 확립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다원화하는 세상에 산상설교는 이 세상의 규범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꾸려갈 수 있는가?

성경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필자는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산상설교는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규제하는 삶의 규범이요 개인적 삶과 교회적 삶 혹은 사회생활을 지도하는 등대요 그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척도이다. 이천 여년 전의 어제나 다름없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며 때로는 꾸중하시고 또 명령하신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도구이다. 다시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듯이 다시 설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 세워진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듯이 그의 산상설교를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피어나게 하신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듯이 산상설교를 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를 떨치고 나오라는, 그렇게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그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절규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예'라고 말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곧바로 산상설교 속으로 뛰어 들어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의 속삭임을 탐구하도록 요청한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그러나 산상설교의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 들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산상설교로 뛰어 들어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이천 여년의 산상설교 해석사는 산상설교의 해석자들이나 그들의 제안을 따라 산상설교를 배우고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주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거나 산상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증언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개 그들의 잘못된 접근태도 때문이었다. 즉 산상설교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전이해들이 있었다. 바른 이해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이 요인들을 '걸림돌'이라고 불러본다.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진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가지 걸림돌을 설명하고 이 걸림돌을 제거하여 산상설교를 향한 대로를 모두에게 활짝 열어 놓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 II. 첫번째 걸림돌 : 산상설교의 실제대상과 적용대상을 혼동한다.

산상설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첫번째 어려움은—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우선 마태복음이 보도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상황을 찾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또 마태 사도에게로 넘어가고 다시 우리들이 처한 현재로 확대된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는 마태사도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둘째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 1) 마태복음을 따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는가?
- 2) 오늘날 누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인가?

대상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축소하는 것은 한 성경본문을 가지

고 다양한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불만족스럽게 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설교의 역사성을 밝히려는 것이나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자들이 산상설교의 대상을 따질 때 대개 그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초기 사역의 한 장면을 정확하게 재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이 산상설교의 현실적 적용면에 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셨느냐는 첫번째 질문에서 학자들은 오늘날의 누가 이 산상설교의 제약 하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두번째 질문을 물어보려고 한다. 강조점이 우리의 현실에 놓여진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에 산상설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고 그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의 개인적 사회적 적용가능성과 구현의 책임성에 대한 실제적인 것이 그 동기가 되어 있다.

설교가 전해진 역사적 대상으로부터 시대를 초월한 실제대상으로 넘어가는 이 도약은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작용이다. 독자들은 200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가거나 그 때의 청중을 2000년 후의 지금으로 끌고 나와 청중과 자신과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을 산상설교의 청중과 혹은 산상설교의 청중을 독자가 속해 있는 집단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이 도약의 과정을 수행한다. 혹은 사람들은 청중과 독자 자신의 공통점 내지 일치점을 근거로 이천 년전의 예수를 찾아 가거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20세기 말의 오늘로 빠져 나오게 하여 그 설교를 듣는다, 따라서 산상설교의 실제 대상에 관한 분석은 오늘날 이 산상설교를 꼭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을 분석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상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

따라서 산상설교는 예수의 제자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윤리'라고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통해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산상설교를 배워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신 천국시민의 생활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말하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설명은 산상설교를 소개하는 배경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상황은 이렇게 설명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라 다니는 무리를 귀찮아 하셨고 그래서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

라 가셨다. 반면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위로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더 잘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설교를 그의 제자들과 기본적으로 같이 취급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혹은 천주교의 입장을 따르던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서약을 한 사제들에게만—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입장을 따를 때 산상설교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라" 등등 산상설교에는 보통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 팔복의 선언도 보통의 것이 아니다. 산상설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계명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요구들이다.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요구라고 할 때 그 진가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꼭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적지 않다. 특히 윤리적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선언되는 '저주와 지옥의 경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한 분명히 제자들의 가치와 그 한계를 다시 생각해 한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산상설교를 들을 자격을 부여했다는 "제자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산상설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자들을 향한 특수한 것이기 보다는 일반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 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아직 이렇다 할 제자들이 뚜렷하게 등장하기 전의 시기에 이 설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제자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시하는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구제나 금식이나 주기도, 염려나 걱정 등에 대한 말씀 등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이 입장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에 설명할 것 처럼 산상설교 앞 뒤에 제자들 보다는 "무리들"이 그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2)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다.

산상설교는 따라서 모든 사람, 즉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전 인류에게 주어지 보편윤리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개인적 삶과 그들의 사회와 인류역사의 규범이다. 산상설교를 마치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인 것 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믿음을 확인한 후어나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산상

설교 먼저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통제되어야 한다. 심지어 경찰이나 군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이 산상설교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와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 내지 멸시하는 것이며 신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만약 한 개인이나 한 사회, 한 국가나 정부가 산상설교를 진실하게 따른다면 틀림없이 이 땅에 머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의 유평화(유평화)가 건설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위1)번 보다 더 확실한 본문의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산상설교가 나오기 전에 마태 사도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했는데(4:25) 이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23절)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셈이다.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몰려 오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신다(24절). 무리들을 피하기는 커녕 찾아 가시고 모으시고 앞서 가신다. 5,1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무리를 피해 도망치신 모습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고르신 모습을 보여준다. 제자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멀리 하셨거나 무리들이 흩어졌다는 식의 설명은 4장과 5장의 상황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산 위에 예수님 주위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7:28~29)이 증거한다: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평소에 그들을 가르쳐 왔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세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산에서 내려 오는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가 계속 따른다(8:1).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회중은 산 아래 있었던 것 처럼 무리들이 산 밑에서 어기적 거리고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기다린 것과 아직 천국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상설교는 무리들, 따라서 별다른 특성이나 자격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보통 사람들, 즉 인류 일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산상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현 문맥에 “제자들”이란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제자들의 자격을 언급했거나 그들을 별도로 취급했던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산상설교가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을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 견해를 따를 때 산상설교가 가진 아주 일반적인 성질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산상설교가 가진 특수한 면을 무시해야 한다는 다른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리들이 분명히 산상설교의 청중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산상설교의 내용이 쉽게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대중을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것만을 이유로 아무나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예수님의 명령들은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선포되기는 하지만 아무나 수락하거나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무리”가 산상설교를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무시하거나 고의로 빠뜨려 버리고 1)의 견해로 돌아 가려는 경향을 띤다.

3) 위의 두 가지 견해는 “제자들”(기독교인들)이나 “무리”(모든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의 특징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하나의 특징을 무시하거나 다르게 설명하게 된다. 결국은 누구도 산상설교를 부분적으로만 이해 설명한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래서 제시되는 것이 “무리 제자들”을 대상으로 잡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을 별도의 사람들로 보지 않고 둘러싼 무리의 한 부분으로 설명한다. 어떤 학자들은 좀 확실하게 둘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들과 제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혹은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로 이해한다. 따라서 산상설교는 필요에(혹은 해석자의 판단에) 따라 무리에게 해당하는 부분과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때 “제자”와 “무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산상설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이 어려움 때문에 결국 제자+무리를 산상설교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위의 1)안 2)안 중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간단한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 산상설교의 의의와 그 적용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해석자의 관점과 취향,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면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이해에 관한 객관적 통일은 요원한 실정이다. 교회사가 보여주는바 산상설교에 관한 다양한 견해는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져 아직까지 일치점이나 조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산상설교해석의 이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방법, 증거들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세 의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

착되고 만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마태가 설정한 산상설교의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산상설교의 내용이 지향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 설교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는 것과 이 설교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팔복(5:3~10)은 그 하나 하나의 복의 선언에서(청중 전체가 아니라)누가 복된 사람인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청중, 모든 독자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거나 읽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복있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있는 사람들이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물고 오신 복된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복된 범주에 드는 사람인지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중이나 독자들을 직접 ‘너희’라 하지 않고 조건을 내세워 이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들을 ‘그들’이란 삼인칭으로 지시하신다. 삼인칭 표현법은 청중과 독자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팔복에 뒤따라 나오는 아홉번째 복(11-12절)에 비로소 청중이나 독자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이인칭 표현법 “너희”가 나온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절이 ‘너희’가 복되다고 불리울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다: “만약 사람들이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한,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 있는 한,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이 관계가 그들의 삶에 반영되어 나오는 한, 즉 예수로 인한 핍박과 고난, 비난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 “너희”는 그대로 청중과 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sup>1)</sup> 팔복과 이 아홉번째 복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직접 청중(독자)에게 적용되게 하는 근거 혹은 조건의 역할을 한다.

마태의 산상설교의 배경설정에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설교가 직접 작용되는—사람들과 관련하여 아무 어려움도 일으키지 않는다. 배경이 아니라 산상설교 자체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설교를 들었다거나 듣는다는 것 혹은 읽는다는 것만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리든지 제자든지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도 없다. 5:1~2에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의 경계선은 산상설교에 의해 복되다고 일컬어지고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불리우는 사람들과 산상설교가 배척하는 사람들의 경계선과는 다른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설교라 하더라도 산상설교 자체가 그들 중에 진정한 복된 사람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무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을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야에 들어왔던지 간에 복된 사람은 그들 중 일부였다.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여 마치실 때까지 무리와 제자들이 그 주위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아무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상설교를 읽어갈 때 설교가 전해진 대상과 설교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제자들로부터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들로 접근하려는 것이 함정이요 무리들로부터 바로 인류일반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또 다른 함정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제자들도 무리도 아니다. 산상설교의 분석과 이해가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해지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준다. 산상설교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앞서야 할 과제이다.

### III. 두번째 걸림돌 : 예수님의 명령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산상설교의 내용을 제한한다

산상설교에서 만나는 두번째 어려움은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사람으로서 지킬 수 없는 내용 즉 실현불가능한 명령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은 아마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 판단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을 의도성에 관한 질문을 낳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산상설교의 두번째 걸림돌이 탄생한다.

이렇게 시작해 보자. 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토론이 계속된 이천 여년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상설교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일단 달려들어 본다. 나아가 자신과 같이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누구나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권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산상설교가 그들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음성이요 또 은혜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산상설교를 천국의 대현장이나 제자들이 윤리강령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야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뜻이라고 강변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산상설교가 그들을 위해 못박히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사실에서 우선 경건해진다. 팔복에 접근하면서 감격과 감사를 터뜨린다. 그것은

1) 7장 21절에서 이 이인칭 표현법은 다시 삼인칭 표현법으로 바뀐다.

새 시대의 새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다.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노라고 자랑하던 유대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다. 오랫동안 전통적 가르침에 얽매어 지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20세기의 과학과 기계문명과 개인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이천 여년 전의 길릴리 하늘에 이러한 교훈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사람들이 생각해 내거나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것과는 아직도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예수와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되는 아홉번째 복의 선언과 이어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으며(읽으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짊어 지게된 사명과 책임을 절감하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된다. 산상설교는 읽으면 읽을 수록 감탄을 불러 일으키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5장 19절에서 감격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나오는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명령이 앞을 가로 막는다. 예수님께서도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조금도 약해질 기미가 없는 율법을 모두가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다. 직접 실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불리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거부하시고, 최소한 그들을 능가하는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인하셨다(20절). 사람들은 이제 다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고 반문하게 된다. 기독교인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건너 뛰어도 되는가? 무슨 구실로? 산상설교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처음부터 읽어온 기독교인들은 이 문이 그들에게도 미래의 것임을 감지하고 당혹해 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인 혹은 제자라는 사실도 그들이 이 말씀을 쉽게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21절부터 나오는 소위 여섯가지의 반제들은 총전의 감격적인 분위기를 이해 공포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는다. 화를 내어서도 안된다. 욕을 해서도 안된다. 경멸해서도 안된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더 깔지 못하면 결단코 빠져 나오지 못한다(26절).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솔직한 대답이다. 기독교인들이 산상설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상설교의 기준이 너무 높아 인간의 열망과 노력으로는 어떤 순간에라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윤리규범보다도 완벽하고 높은 이상 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쳐다볼 수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고 느낀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요구는 너무 고귀해서 어떤 인간—성인이라 불리우는 삶—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상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누가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으로서서는 불가능한 완전주의의 이상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상설교가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듣거나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하나 하나의 명령의 수행 여부는 천국, 혹은 지옥과 결부되어 있어서 산상설교를 읽고 있는 한 누구라도 절망적인 한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구원에 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명령, 소위 완전주의의 이상론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과 함께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극단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불가능한 명령의 준수여부와 천국 혹은 지옥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 혹은 심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의 축복을 읽은(들은) 그래서 이것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감격해 하던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다루는 말씀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직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누구나 천국에 드러가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선언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팔복이나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전제로 했던 것도 결국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불가능한 명령들이 영원한 축복 내지 저주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모든 것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기독교인들은 첫번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단, 선택의 기로에 세워진다. 1) 불가능한 명령들을 인정하고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2) 이 명령들을 무시하고 뛰어 넘을 것인지... 새시대의 구원의 기쁨에 젖은 기독교인들은 기꺼히 예수님의 명령들의 현실감 내지 실제성을 포기하고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많은 학자들, 특히 루터주의로 분류되는 신학자들은 산상설교 중 대부분의 명령들의 역할을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의 길을 여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율법의 기능과 동

일시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신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며 우선 구약적 맥락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당연히 율법적 관점이 그 핵심이 된다. 즉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보다 더 선명하게 제시하시므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길과 그러한 구속의 필요성을 향한 길이 예비된다. 산상설교를 읽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 그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산상설교의 효력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킬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높으신 뜻을 알고 그곳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상, 인간성과 그 정체를 깨달아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것은 기독교인 이전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불가능한 것을 하거나 빠짐없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처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 뿐이다. 예수를 믿고 천국의 축복을 들은 사람들에게는—그들은 이미 기독교인 이후의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더 이상 산상설교의 엄청난 요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율법의 명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강요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요 끝이시다. 율법은 그의 십자가로 폐지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복음의 찬송을 부르지만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는 이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이미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율법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다.

복음이 극대화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이 최고조로 강조되는 반면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1) 루터주의적 산상설교 이해는 율법을 폐지하려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이 폐지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율법이 폐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율법적 순종으로 적당하게 설명 위장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하신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산상설교에서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선자로 분장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지키리라고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으시면서, 마치 정말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것 처럼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을 위협, 경고, 권고하시는 분이 이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정말 굉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트릭을 쓰신 것이다. 산상설교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설교가 되어 버린다.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명령에의 순종)과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죄의 인식과 구속의 필요 및 열망)이 전혀 다르다. 내용 자체(=순종의 요구, 즉 하나님의 뜻이라 불리우는 것)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산상설교는 비유도, 과장법도, 수수께끼도 아니다. 더군다나 윤리적 명령의 형태로 무엇을 위장하여 말씀하신 예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불가능적 이상론을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말았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산상설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찾는데 치중하지 않고 내용을 찾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운데 있다.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 옳은 결론이다. 문제는 이 결론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관한 이 결론을 전제로 삼아 다시 산상설교의 내용을 검토하고 급기야 내용자체를 재해석 하고 제한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던 본래의 의도는 이 단계에서는 저절로 포기된다. 불가능한 명령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구실 아래 산상설교가 말하지도 않고 산상설교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의도, 전혀 다른 목적을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토대로 하여 발려온 것이 결국은 산상설교를 폭해하고 그 진의를 파묻어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문이해에서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지 본문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전제는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명령을 바꾸거나 방향을 들어서는 안된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또 그런 능력을 보유해서도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 채택하셨으므로 언어로 표현된 것을 있는 그대로 찾아 내는 것이 해석자들이 해야 할 첫째 과제이다. 그 내용이 파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문맥이나 신학을 논해야 한다.

#### IV. 세번째 걸림돌 : 목효과 과정을 혼동한다.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신앙적 윤리적 명령들

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고 직접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확인한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자만심과 우월감, 성취욕에 쉬 젖어들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다. 높은 선을 그으셨음이 잘못인가? 이해하지 못할 일인가? 아니,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인가? 산상설교는 수천년 교회사와 의 와중에서 어떤 신앙의 영웅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은 처녀림으로 남아 있다. 인간은 산상설교가 계속 말하고 있는 한 교만해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 그리스도의 의지와 의지 사이의 간격은 영원히 없어지고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인간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 같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한선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하나님의 하한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려 하는 것이다.

다른 질문을 던져 보자. 불가능하다고 버릴 것인가? 도달할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시도도 해서는 안되는가? 산상설교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도록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 사람들은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즉시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포기쪽을 선택하고 만다. 여기에 헛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까? 우리는 한 번 더 반문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인데 정말 건너 뛰어야 하는가? 그냥 넘어가고 이 설교의 배후에 계신 주님을 잊어도 좋을까? 그리스도의 명령인데도? 그의 피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실현불가능하다고 해도 덮어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안철부절하며 결단도 포기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우유부단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나 어찌편이 머뭇거리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은은한 증거인지도 모른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한 마디도 무시할 수 없음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산상설교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한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더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 열심히 이 완성적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불가능성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더 굳게 무장시킬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했더라도 도전과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이 그의 제자 된 사람들의 도리이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산상설교를 포기하거나 다르게 설명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제공한 것 처럼 생각한 것이 너무 성급하고 단편적인 선택이었다.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왜 산상설교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가? 정말 불가능한가? 산상설교가 말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목표만 제시되었다고 과정이 무시당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과정이 목표제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은 원수만을 사랑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원수라는 극단적인 미움이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명령은 인간적인 요소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앙적 윤리적 규범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지 않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최고의 규정을 통하여 다른 작고 세밀한 부분 즉 이 지고의 규정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단계들을 윤리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산상설교는 윤리교과서가 아니다. 또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제한·규정·설명하는 신앙지도서나 원리집이 아니다. 신앙율법서는 더군다나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과 윤리의 대 원리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목표점을 지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과정들, 그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들은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든지간에—각자에게 필요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그려보면 가능한 것이 있다.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의 명령들은 이 가능한 과정을 통제하며 사람들을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의 목표로 이끌어 간다. 산상설교에 직접 표현되어 있는 최상의 경지를 바라보면 항상 불가능하고 도달할 수 없는 명령임에 실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현재에서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한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면 시작보다는 나아져 있는, 출발했을 때보다는 그 목표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에 있는 열매도 진실한 열매이다. 우리는 더 나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따르고 기도하며 노력하지 않는가? 그렇다, 불가능한 이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우리의 삶의 개선해 가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이 실망과 좌절과 포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희망과 도전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 잡히는 삶을 만들어 낸다. 온 길을 돌아 보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야를 미래로 돌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한다. 산상설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등대이다.

윤리적 명령에서 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이 과정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삶이란 그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한 언제나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 즉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산상설교가 지향하는 목표점과 그 과정에 도달해 있는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산상설교의 명령들에게 과정에 해당하는 명령을 예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주체적으로 따라가는 행위자 즉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출발점과 과정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어린아이 때의 삶과 청년 시절의 삶이 다르다. 청년 시절의 윤리적 삶의 모습과 중년기의 윤리적 삶의 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순간이 죽음으로 영원한 종착점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우리의 현재는 항상 과정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은 한 편으로는 과거와 다른 한 편으로는 미래와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야 하고 미래는—만약 그것이 우리의 현재로 다가온다면—현재보다 나아야 한다. 윤리적인 결단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의 순간에는—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누구나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까지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정욕도, 욕망과 야망도 모두 버린다. 삶을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 보내는 이 순간은 산상설교에 어느 때 보다도 더 근접해 있는 순간 아닐까? 삶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과거로 고정될 때 우리는 산상설교의 많은 명령들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산상설교 이 순간에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스테반의 삶이 하나의 삶으로 묶여지는 순간 그의 입을 뚫고 터져나왔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산상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아닌가! 곧바로 그의 숨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기도를 후회하고 그를 죽이는 원수를 미워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주님의 요청은 그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극히 짧은 순간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직 그 삶이 완성될 시점을 향해 살아가는 중에 있다.

산상설교를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근본 이유는 과정에 있는 삶과 주님의 교훈의 과정을 규정하는 역할을 비교하지 않고, 혹은 승리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그 종말과 주님의 교훈의 목표를 비교하지 않고, 과정과 목표, 살아 움직이는 유동의 순간과 이 순간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섞어 비교하는데 있다. 산상설교의 교훈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취해야 산상설교를 최소한 곡해하지 않게 된다:

1) 산상설교가 목표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을 과정에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치 끝난 상태로 예상하는 방법. 이 실례를 우리는 성경이 과거의 한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심의 과정들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운다.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과 전체 삶을 평가하는 기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불가능성은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기 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한다. 산상설교는 미래를 끌어와 아름다운 과거로 만드는 이 노력을 요구한다.

2) 산상설교가 말하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 보고 그 과정에 필요한 원리와 상황을 추출하여 과정에 있는 자신의 삶의 비교하는 방법.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① 절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 ② 내가 사랑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는 사람, ③ 별 관계가 없는 무감각한 사람, ④ 공연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⑤ 적대감과 분노와 미움이 절로 솟아나는 사람, 즉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람들을 이웃이다. 원수다, 친구다, 가족이다는 식으로 주관적인 관계와 감정에 따라 구별하여 다르게 대접하지 말고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 사랑을 보이라는 명령이다. 대상으로 구별하는 습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인간성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상설교는 손쉬운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과 윤리적 선택이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요구한다.

## V. 맺는 말

이상 지적한 세가지 밖에도 크고 작은 걸림돌이 여기 저기 널려 있어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걸림돌은 산상설교의 본문과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모두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위의 세 가지 못지 않게 심각한 걸림돌은 교회와 세상 혹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면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 함께 산상설교의 일차적 걸림돌을 제거한 이 마당에, 주님의 설교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들이 용기를 얻어 산상설교를 읽고 그 현실적 가치와 실제적 역할을 섭렵·확인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주제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 이유는 마태 사도가 산상설교의 배경으로 교회와 관계된 “제자들”과 세상과 관련개념인 “무리”를 이중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세상과 교회,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교회의 윤리라는 이원론적 도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입고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교회의 일원, 즉 그 지체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혹은 선교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 즉 세상은 그 자체의 가치가 긍정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 올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남겨져 있다. 끝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교회와 세상이 글자 그대로 하나가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란 부름의 역사요 교회와의 역사이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타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거부한다. 교회만이 긍정된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과만이 인정되는 요소이다.

성경에는 세상을 위한 윤리나 세상의 생활 원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곧 세상을 위한 것이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유별난 삶을 살아야 하고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고백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모두에게서 발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윤리체계 즉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성경은 사람들의 거부를 착각으로 취급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의 뜻 같은 신앙과 윤리의 규범을 배워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세상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도망다녀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어디로도 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님의 교훈과 설교를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한 것이다. 세상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할 수 밖에 없다. 부정하는 것이 잘못이다. 성경이 말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의 교훈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한국사회의 혼란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혼자만 알고 있거나 알면서도 억지로 곡해하고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스스로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있다.